우울증에 시달린 '95 상반기 출판가

발행종수 줄고 부수는 증가… 과잉공급으로 업계 고통 자초

도서대여점, 가격파괴 바람, 종이 수급의 어려움 등 악재가 겹친 상반기 단행본 출판시장은 최악의 불황을 겪었다. 출판협회가 집계한 지난 상반기(1월~5월) 통계에 따르면 작년 동기와 비교해 출판 종수는 줄고, 부수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소비감소에 공급과정까지 겹쳐 업계에 고통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폭증한 도서대여점, 가격파괴를 내세운 프라이스클럽, 책 정가제 붕괴 위기, 6·27 선거와 가격인상으로 인한 종이수급의 어려움. 이상이 올 상반기 출판·서점가에 먹구름을 몰고온 주원인들이다. 그야말로 악재만 겹친 불운의 연속이었던 셈. 그러나 출판협회가 집계한 지난 5개월간(95년 1월~5월)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동기와 비교할 때 올 상반기 출판종수는 초판의 경우 13,364종으로 426종이 줄어든 반면, 발행부수는 7천,41만3,798부로 약 1천4백만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최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됐음을 알 수 있다. 바꿔 말해 소비가 줄거나 주춤한 상태에서 과잉공급이 이뤄져 업계의 고통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학·사회과학 등 뚜렷한 감소 추세

불황과 무관하게 전체적 출판물량이 크게 늘어난 점이 예상치 못한 결과라면, 장르별 출판종수와 부수의 전년대비 증감 역시 흥미로운 결과를 낳고 있다. 총류·순수과학·학습참고서가 종수와 부수 모두 증가한 반면 종교·사회과학·기술과학·문학이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철학·어학·역사는 종수는 늘고 부수는 감소했거나 그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여기서 더욱 눈여겨 볼 것은 일반 단행본의 핵심장르인 문학과 사회과학이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는 점. 문학의 경우, 2,423종(94년)에서 1,933종으로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부수 역시 50만부 가량 줄었고, 사회과학도 비슷한 상황을 연출했다.

이같은 장르별 통계 결과는, 불황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전반적 성적표와 달리 단행본 시장의 극심한 위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시장의 현장인 서점가로 나가면 체감온도는 훨씬 더 내려간다. 우선 대형서점인 교보문고에 따르면, 올들어 단행본류의 경우 5%내지 8%의 판매량 감소를 보이고 있다 한다. 이에 비해 소매서점은 사정이 더 악화돼 있는 형편. 전국서점조합연합회측에 의하면 "최소한 30%에서 지역에 따라 50% 이상이나 판매실적이 떨어졌다"고 한다.

이같은 소매서점의 경영악화는 도매상의 경영압박과 연결되고 다시 출판사의 목줄을 죄는 고리를 형성하게 마련. 따라서 올 상반기에 도산하거나 부도설이 나돈 출판사는 수를 헤아리기 벅찰 정도다. 그 가운데 ㅅ출판사와 ㅎ출판사 등 꽤 이름이 알려진 대여섯개사는 급기야 문을 내려 업계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베스트셀러권에 든 '효자'를 낸 우리문화사의 박경숙 사장은 "잘나가는 책이 있어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책이 나간다 해도 광고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어려움을 설명한다.

"요즘은 소매서점들이 결제일만 되면 문을 닫아걸기가 일쑤고, 그래서 어지간한 출판사들의 영업자들은 출장비도 안빠지는 지방출장을 아예 포기하기까지 한다. 뿐만 아니라 어음할인을 하려 해도 할인업자들이 대학천 어음 받기를 꺼리고 있어 자금난이 심각하기 짝이 없다."

한 소규모 출판사 영업부장의 말마따나 출판사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감수하던 어음할인이 이제는 아무리 애써도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당연히 영업자들이 영업은 뒷전이고 할인업자를 찾아나서는 게 일과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영업자의 고민은 앞으로 할인할 어음마저 바닥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있다. 하긴 최소한 5백부선을 유지하던 일일 주문량이 5, 6월 들어 고작 3, 40부 수준에 그치고 있으니 그럴만도 할 것이다.

출판 인기장르의 변화 조짐

올 출판시장의 단면을 보기 위한 또 한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건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독서경향을 진단하고 출판사의 사정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먼저 순서에 따라 지난해를 살펴보자.

한마디로 지난해는 "밀리언셀러는 넘치고 시장은 숨죽인 그런 한해"였다. 즉 공전의 히트작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4백만부 이상)로 대변되는 밀리언셀러들이 서너권씩 선보인 반면, 다른 책들은 초판(3천에서 5천부 정도)소화도 벅찬 경향을 보여 외화내빈을 이룬 그런 해였다. 그런데 올들어 화려한 겉모양새도 찾을 수 없는 서점가가 된 것(출판저널 172호 4, 5쪽 참조). 우선 베스트셀러의 조건이 변했다. 작년만해도 서울시내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10위권에 오르려면 해당 출판사의 전체 주문량이 적어도 3천부 이상은 돼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절반에도 크게 못미치는 상태다.

'95 상반기 (1~5월) 출판 통계

(대한출판문화협회 집계)

구분 / 분야	발행 종수(초판)			발행부수(초판)		
	'95	'94	증가율(%)	'95	'94	증감율(%)
총류	169	104	62.5	342.120	267,560	27.8
철학	419	349	20.0	2,238410	2,384,910	-6.1
종교	702	748	-6.1	1,501,094	1,947,890	-22.9
사회과학	1,423	1,465	-2.8	2,262,283	2,278,272	-0.6
순수과학	234	193	21.2	462,350	284,660	62.4
기술과학	1,339	1,791	-25.2	1,965,729	2,161,614	-9.6
예술	500	562	-11.0	1,026,450	1,575,050	-34.8
어학	564	493	14..4	2,579,239	1,649,930	56.3
문학	1,933	2,423	-20.2	5,059,217	5,551,880	-8.8
역사	410	469	-12.5	701,396	734,946	-4.5
학습참조	2,224	1,670	33.0	41,574,560	28,410,950	46.3
아동	1,459	1,603	-8.9	4,226,100	5,272,660	-19.8
계	13,364	13,780	-3.0	70,413,798	56,790,422	23.9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나 《사람을 읽으면 세상이 즐겁다》 등의 사회과학 분야의 책들은 이미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뒤처지다 다시 복귀한 대표적인 케이스. 그러나 이런 책들이 전과 같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진 못하다. 즉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밀려올라온 베스트셀러들인 셈이다. 그런 와중에도 올 상반기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책들은 어떤 것들인가.

종합순위에선(서울시내 대형서점 4곳의 순위를 견준 결과) 공지영의 《고등어》(소설) 이명박의 《신화는 없다》(비소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2》(인문) 임채성 외의 《컴퓨터 길라잡이》(컴퓨터) 시드니 셸던의 《영원한 것은 없다》(외국소설) 등이 눈에 띈다. 이같은 통계에서 특이점을 찾자면, 우선 상위권을 독식하던 소설이 점차 밀려나 인문서나 컴퓨터책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순위는 그렇다 치고 판매량도 1위에서 10위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종로서적의 경우, 종합1위인 《고등어》(4,281부)와 《신화는 없다》(3,335부)의 부수차이가 1천부도 안되게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설의 판매부수가 뚝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소설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시집과 컴퓨터책·건강·비소설류의 강세가 두드러져 출판의 인기장르가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하게 한다. 《서른 잔치는 끝났다》 등의 시집 대여섯권이 종합순위에서 상위권에 포함돼 있고, 컴퓨터책과 건강서 등의 분발이 그런 예측을 낳고 있는 것.

또 한가지 올 출판·서점가의 특색을 꼽자면 물량광고를 무기로 밀리언셀러를 꿈꾸던 출판사들의 퇴조와 20여년의 사력을 자랑하는 중견급 출판사들의 베스트셀러권 장악을 들 수 있다. 그 좋은 예로, 창작과비평사는 《동의보감》이후 《나의 문화유산답사기1, 2》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로 이어지는 거침없는 행진을 거듭하고 있으며, 민음사 역시 최근 《모짜르트가 살아있다면》에 이어 《느림》을 연속 히트시키면서 자리굳히기에 들어선 모습.

"올 상반기 출판·서점가는 한마디로 단행본 시장의 열세가 많은 출판사들의 도산과 경영압박으로 이어진 힘든 고갯길이었다. 하반기 역시 희망과 무관하게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출판평론가 김영수씨의 지적처럼, 단행본 업계의 지각변동과 불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또 "혼탁하고 불안정했던 출판계가 이제 정리의 시기를 맞아 겪는 고통이므로 각 출판사마다 지혜로운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는 한 중견 출판인의 말도 새겨둘 일이다.

〈최태원〉